

성·연령집단에 따른 사회참여와 주관적 건강수준

박은옥¹⁾ · 이효영²⁾ · 장숙량²⁾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¹⁾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²⁾ ·

1. 연구목적

사회참여는 연령과 성에 따라 그 의미나 참여정도가 다르므로, 따라서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다를 것이다. 본 연구는 성, 연령집단에 따라 사회참여가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 성·연령집단별 사회참여 정도를 파악한다. 2) 남성의 연령집단별 사회참여가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3) 여성의 연령집단별 사회참여가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03년 사회통계조사 원시자료 가운데 25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건강수준은 주관적 건강수준을 묻는 문항을 매우좋다, 좋다, 좋은 편이다를 양호한 군으로 묶었고, 그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는 좋지 않은 군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참여는 공식, 비공식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지난 12개월간 지역사회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여부를 질문하여, 지역사회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은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를 참여로, 종교활동은 일주일에 한번이상 참여한 경우를 참여로 보았고, 이 세가지 활동에 대해 참여없음, 한가지, 두가지 이상 참여으로 구분하였다.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주택소유여부, 취업상태 등은 보정변수로 삼았다. 분석은 카이제곱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고, 보정변수를 보정한 Odds ratio를 구하였다.

3. 연구결과

43%가 사회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18.2%가 두가지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42.0% 남성과, 35.9% 여성이 한가지의 사회참여를, 16.5%의 남성과 19.7%의 여성이 두가지의 사회참여를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성, 연령별 사회참여 정도를 보면, 중년기의 성인이 성별에 관계없이 가장 사회참여 비율이 높았고, 노인의 사회참여정도가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별 건강수준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수준이 더 나빴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수준과 사회참여정도는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결혼상태, 주택소유여부, 흡연, 음주 증을 보정하고도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음을 보였고, 65세 이상 노인에서 사회참여가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다른 변수를 보정하였을 때, 사회참여가 없는 사람에 비해 사회참여가 있는 사람이 남성에서는 2.17배, 여성에서는 2.56배의 Odds ratio를 보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주관적 건강수준과 사회참여는 성별에 따라 그리고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고, 사회참여가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정도도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사회참여가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커졌고,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참여가 모든 연령집단에서 건강을 유지하는데관련이 있는 변수이고, 사회참여의 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